

※칼럼 내용은 본 신문의 論調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데스크

윤정일 디지털뉴스팀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의 기분'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돼 있는 속옷을 꺼내 입을 때의 행복'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그의 에세이 '망꺾한 스님의 오후'에서 이런 감정을 '소확행'이라고 표현했다.

'소확행(小確幸)'. 바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을 뜻하는 이 단어가 요즘 우리 시대의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떠올랐다.

비록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을 요즘 세대는 바라고, 또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돈 또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행복 수준을 결정한다고 여겨왔다.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값비싼 자동차를 몰며, 럭셔리한 패

소확행(小確幸)

션소품을 구매하면서 행복하다고 느꼈다. 남들에게는 허세로 비쳐지더라도 본인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이런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작은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소확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소확행은 '비싼 황금'이 결국 부질없다는 것을 느낀 결과로 나타난 것일까.

흔히 요즘 젊은 세대를 'N포 세대'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더니, 이제는 '집'과 '경력'에 '희망·취미'와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20~30대는 치솟는 물가와 등록금, 취업난, 집값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 있다.

때문에 작은 기쁨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소확행에 만족하는지도 모르겠다.

소확행을 추구하는 문화가 '부의 허망함'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룰 수 없는 목표에 좌절된 세대의 안주함은 아닌지 곰씹게 된다.

금요일 아침



김수민 리온워즈 대표 (스피치디자이너/방송인)

4차산업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묘한 감정이 교차된다고 한다. 혁신적인 생활의 편리함이라는 긍정적 기대감과 점차 사라질 것 같은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불안감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인공지능이나 로봇, 가상증강현실을 주도하는 것은 사람이다. 역사 속에서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은 자신을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보좌할 인재 중용에 신경 써왔는데 그 존재가 명마(名馬)인 경우도 있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8마리의 명마가 있었는데 이 팔준마(八駿馬)는 고려왕조 500년 역사의 마무리와 조선왕조의 시작점에서 큰 활약을 했다. 고려 말, 무장으로 활약하던 그가 신흥무인세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팔준마 덕분이었다는 설이 있다. 훗날 손자인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도 팔준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몽유도원도를 그렸던 안견에게 팔준도를 그리라고 할 만큼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었다.

팔준마는 흥건적을 평정할 때 탔던 흰운골, 함흥산과 해주전투 외에 운봉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승리할 때 탔던 유린청, 여진산에서 탔던 추풍오, 단천산과 해주에서 왜구를 물리칠 때 탔던 용등사, 제주산과 위화도 회군때 탔던 응

삼백, 강화도 매도산과 지리산에서 왜구를 물리칠 때 탔던 사자황, 함흥산과 토아동에서 왜구를 물리칠 때 탔던 현표, 안변산에서 탔던 발전사 등인데 이 중에서도 이성계는 함흥산 말인 '유린청'을 가장 아꼈다고 한다. 전장에서 화살을 3대나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31년을 살았던 명마였기 때문이었다고.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단연 적토마다. 이름처럼 붉은색 털을 가진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로, 삼국지연의에 따르면 여포가 타고 다니다가 그가 죽은 후, 조조가 관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적토마를 선물했다고 한다. 그만큼 명마는 장수들이 탐내는 존재였다.

단신인 전쟁 영웅 나폴레옹이 사랑한 말은 작고 이름다우면서도 용맹하고 튼튼했던 아랍출신 마렝고였다. 마렝고는 전 유립을 제패하며 승리를 이끌었던 나폴레옹이 탔던 명마다. 역사 속 영웅의 곁에 있던 말, 이들은 그 주인의 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하며 함께 역사를 써내려갔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라비아말이 명마가 된 유래를 들어보면 의미심장하다.

가장 훌륭한 말을 갖고 싶었던 한 사람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비싼 값을 지불하고 100마리를 찾아냈는데 우리에게 가두고 배를 타 먹이도 물은 한모금도 주지 않았다. 말들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인은 우리 문을 열고 시냇물이 흐르는 푸른 초원으로 내달리게 했다. 말들이 시냇가에 다다를 즈음, 주인은 풀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때 100마리 중 네 마리가

주인의 풀피리 소리에 멈춰섰고 이 네 마리의 말이 아라비아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인들은 인재를 찾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 주인은 명마를 찾고 있고 청년은 자신이 명마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늘이 주는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가졌다면 장단기적 목표를 정하고 자기개발과 함께 정확한 방향으로 내달려야 할 것이다.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면 누구는 게임에, 누구는 본인과 상관도 없는 포탈 기사에, 드라마에, 음악에, 그리고 누구는 오디오북에, 강의에 몰두해 있다. 요즘은 휴대폰에서 소비되는 70% 이상의 콘텐츠가 영상이라는 통계가 있다. 아침마다 소비되는 콘텐츠의 선택이, 어쩌면 각자의 인생길을 가르는 길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나라의 도연명은 하루에 아침을 두 번 맞지 못하니 세월부대인(歲月不待人), 즉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시를 읊었는데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로 널리 인용되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권면하고 있다. 4차산업시대에 시대를 바꾸는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 그 영웅들을 태우고 달릴 명마가 되고 싶은 사람은 실속없이 분주한 삶을 한번쯤 돌아보고 되새겨야 할 지혜의 말씀이다.

기자의 눈



정형석 기자 azar76@

든다. 최근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ESS, 전기차와 같은 에너지산업 등이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술적·학문적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다.

기준에 해오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기술과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의

계통운용시스템(EMS)의 신뢰성, HVDC 확대의 필요성, 신재생과 ESS 연계의 효용성, 전기차의 친환경성 논란 등 손에 꼽기 어려운 정도로 많다.

그런데 이중 몇 가지는 벌써 몇 년째 평행선을 달리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양쪽의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학자적 양심을 외면한 채 국민을 속이고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고

과연 누가 진짜 전문가인가

얼마 전 모대학의 전기공학 교수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요즘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자처하며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토론회 패널로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인다고 '전기신문'의 지면을 빌려 끝장토론이라도 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 만난 또 다른 교수 역시 기자가 신뢰하는 학계 인사를 두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최신 기술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끝장 토론이라도 한다면 망신당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요즘 믿을 만한 전문가가 과연 누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문제 해결은커녕 논란만 더 키울 뿐이다. 이렇게 된다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 공부는 않고 서류에 편승하다보니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에너지업계의 논란이 되는 이슈를 꼽아 보자면 원자력의 안전성,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의 필요성,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주변 논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인한 계통불안과 대책, 전력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 논거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반 달라진 게 없다. 전문가 풀 자체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어떤 주제는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다. 누가 전문가인지조차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본인이 직접 경험해 봤거나 수년간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들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스스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전기신문 electimes.com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3회) 등록 서울, 가50118
사장·발행인 이형주 편집인 이홍우 편집국장 유희덕 인쇄처 문화일보
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87길 8 (동촌동) (우)07664 대표전화 (02)2168-1300
사장실 (02) 2168-1301-2 광고매케팅팀 (02) 2168-1351-7 광고문의 (02) 2168-1351-7
부사장실 (02) 2168-1303-4 편집지원팀 (02) 2168-1306-8 FAX 2168-1349 FAX 2168-1349
편집팀 (02) 2168-1312-5 경영지원팀 (02) 2168-1306-8 FAX 2168-1349 FAX 2168-1349
에너지Biz팀 (02) 2168-1320-4 FAX 2168-1349 FAX 2168-1349 FAX 2168-1349
산업팀 (02) 2168-1330-4 사업팀 (02) 2168-1360-1
디지털뉴스팀 (02) 2168-1340-2 FAX 2168-1349 FAX 2168-1349
본사 외국계회사
중국전력(중국), 베트남전기(베트남)
기자실(미국), 홍콩 E&EN 재발

MOF, CT, PT 전문생산 56년 / 정부조달 우수제품 선정

당사의 제품은 국내 최초로 MOF 내부의 PT부 철심의 구조를 개선하여(삼각철심 → 단독철심) MOF 전원측(외부)의 결상 사고시에도 MOF가 소손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유입형 MOF(3각철심구조)는 개폐기 오작동 또는 파워퓨즈 단선 등 MOF 전단에서 결상사고 발생시 MOF는 반드시 소손이 됩니다. (결상사고 발생시 과부하 발생) - 2011년도 11월 대한전기학회 논문(추계학술대회 / 발표자 : 현진 전력연구원/송배전연구실)

22.9kV 유입형 MOF 개선전 (3각 철심 사용) 개선후 (단독 철심 사용) 22.9kV 플드형 MOF
[Diagram showing the transition from a 3-triangular core MOF to a single-core MOF, highlighting the reduction in height and the resulting benefits for safety and reliability.]

영화산업전기주식회사

본사·공장·연구소 : (421-606)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23-1 TEL. (032)671-7184(전) FAX. (032)678-0344
서울사무소(영업부) : (140-646)서울특별시 용산구 영호로 121 27-20 TEL. 713-8937(전), 717-0900 FAX. 717-0300, 0306
Homepage : www.yhe.kr
전적 및 기술문의(E-Mail) : mofcpt@chol.com